정책홍보관리실장에 이재균 전 해운물류국장 임명

해운물류국장에 신평식 전 해양정책국장 발령

해양수산부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다.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30일 1급 자리인 정책홍보관리실장에 이재균(李在均) 전 해운물류국장을 발령하고 해운물류국장에 신평식(申平植)이사관, 해양정책국장에 김영석(金榮錫) 이사관을 각각 임명 발령했다.

김성진 장관은 이에 앞서 8월25일자로 임기택(林基澤) 국장을 주영국대사관 참사관(주영 해무관)에 임명 발령했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받는 점은 해운물류국장 출신의 이재균 국장이 승진하여 1급 자리인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됐다는 사실과 과거 해운항만청 시절 해운국 외항과 사무관을 지낸 바 있는 신평식 국장이 해운물류국장에 임명됐다는 사실이다. 특히 신평식 국장의 경우 이제는 해양수산부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정통 해운행정가라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공석중인 홍보관리관과 안전관리관에 대해서는 전부처 대상의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정부 인사위원회에서 곧바로 공고를 낸다고 할 경우 보름 후인 오는 9월 중순경에 적임자에 대한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균 정책홍보관리실장 약력〉

△1954년 9월20일 부산 출생 △73년 부산고 졸업 △77년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행정고시(23회) 합격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부두과장 △미국 뉴욕/뉴저지 항만청 △해양수산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운물류국장

〈신평식 해운물류국장 약력〉

△1955년 8월5일 충남 서천 출생 △73년 이리남성고등학교 졸업 △79년 성균관대학교 졸업 △행시 24회 합격 △해운국 외항과, 운영국 지도과 행정 사무관 △해운항만청 서기관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보관, 감사관 이사관 △해양정책국장 △해운물류국장

평택 · 당진항 내항 컨부두 9월1일 착공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평택 · 당진항 내항 컨테이너부두가 9월1일 착공에 들어갔다.

이 공사는 3만톤급 3선석(720m)과 부지 12만7천평을 조성하는 컨테이너터미널 건설 사업으로 총 1,370억원을 투자해 2009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터미널에는 겐트리크레인 3기와 컨테이너야적장 8만7천평 및 종합물류센터 3만7천평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을 주관사로 설립된 평택아이포트(주)가 부두를 건설해 국가에 기부하고 사업 시행자는 일정기간 무상 사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완공후 30년간 무상 사용하게 된다.

평택 · 당진항은 대중국 교역량 증가로 컨테이너 부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두가 완공되면 수도권 및 중부권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연간 37만5천TEU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2009년 완공예정인 항만배후단지(48만평)와 연계될 경우 수도권 화물적체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포승산업단지 등 배후 산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